

ChosunBiz

제네시스, 애스턴마틴 출신 영업통 영입...유럽 시장 진출 준비

기사입력 2020-04-26 18:14



현대자동차가 영국 슈퍼카 브랜드 애스턴마틴 출신 영업 전문가를 영입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제네시스 유럽법인은 애스턴마틴의 유럽 영업을 책임졌던 엔리케 로렌자나(사진)를 유럽 영업총괄 책임자로 선임했다. 25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로렌자나 총괄은 이탈리아 고급차 브랜드 마세라티에서도 일했다.

애스턴마틴은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가 탄 차로 잘 알려진 스포츠카 브랜드로,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2억원을 웃돈다.

현대차는 로렌자나 총괄을 앞세워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망을 구축하고 판매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급차 브랜드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로렌자나 총괄이 현대차에 합류하면서 제네시스의 유럽 진출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중동, 호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유

럽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유럽과 중국에서도 GV80을 판매할 것"이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네시스가 스포츠 중형 세단 G70과 준대형 세단 G80,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 등 3개 모델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66&aid=0000515614>
